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
(시18:1)

주간 중헌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윤명식
편집국장: 송경수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중헌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000 FAX: 552-2925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92년도 목회 지침: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표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23)

24시간 연속 기도회 실시

당회 결정, 교회부흥과 배가 성장 목표 위해 교역자·장로·안수집사·권사·서리집사 모두 참여

본 교회는 지난 7일 저녁 7시 40분 갈릴리움에서 임시 당회를 열어 24시간 연속 릴레이 기도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92년도 목회 방침에 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주제 성구와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라는 표어에 의거하여 총동원 전도에 앞서 모든 성도의 기도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감안, 이 같은 결정을 기도하

면서 의결하였다.

24시간 연속 기도회는 우선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남녀 서리집사가 주축이 되어 조별, 시간별로 편성 총동원 전도 주일까지 계속되는데, 구체적인 기도 전략 수립은 담당 부서가 기획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번 연속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천국 일꾼을 양성하는 일과,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복

한 선교 포함)를 이룩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겠다.

환자 지원 심방 이두란 전도사 담당 구명신 전도사 담당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요청에 따라서 장년으로 은퇴한 이두란 전도사와 구명신 전도사는 본 교회 환자들을 위한 지원 심방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신 목사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할 권사들의 협력을 부탁하였다.

세계선교위원회 실행위원·기도위원 임명식 19일에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남선우 장로)는 오는 1월 19일 오후 3시 나사렛홀에서 실행위원 및 기도위원 임명식을 갖는다.

이 실행위원과 기도위원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아세아권, 아프리카권, 아메리카권, 유럽권으로 나뉘어져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도회 지원을 하게 된다(실행위원 및 기도위원 명단은 다음호에 게재).

본 교회 장로 증원 청원 허락

수도노회 임시노회에서

수도노회(노회장 이만수 목사) 임시노회가 지난 9일 오후 2시 왕십리교회당에서 개최되어 우리 교회가 청원한 장로 20명 증원 청원을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본 교회 당회는 장로 파택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2월 중 공동의회를 열어 장로 투표를 가결 예정이다.

제직 헌신 예배 19일 찬양예배시에

신년들어 첫 번째 헌신 예배인 제직 헌신 예배가 일정을 앞당겨 1월 셋째 주일인 19일로 확정되었다.

제직 헌신 예배는 매년 넷째 주일에 지켜왔지만 금년에는 선교 주일 기념 예배 관계로 한 주일 앞

당겨졌는데, 제직회 관계 임원들은 헌신 예배 준비에 착오없도록 주지하는 한편, 당일 모든 제직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예배위원회는 당부하고 있다.

중헌프리즘

①... 위임목사 권성종 목사는 최근 자살에 대한 호칭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지를 공식적으로 부를 때에는 "당회장"이라고 통일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②... 금년부터 교구 지도 교역자들에 모든 심방은 목사 외엔 도사 분례 심방이 아닌 함께 심방으로 변경되어 실시케 된다.

③... 중헌도서관(선교관 2층) 아홉에 주일에도 가능하게 되었다. 주일 개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이다. 단 공휴일과 철요일은 휴관한다.

④... 우리 교회 주차장의 주차 능력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차량관리부 박치민 장로는 주차 능력에 대해 승용차를 기준으로 주차 장소인 지하 1층,

2층, 뱃배계광장, 선교관 및 본당 뒷편, 교육관 앞, 본당 앞, 그리고 선교관과 교육관 사이에 들어와 잘 경우 약 1,200대가 일시에 수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왕도들의 생활 수준에 향상됨에 따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차량 보유대수도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데, 큰 행사를 치를 때에는 주차장 할 소로 차량관리부 부원들의 봉사는 곤욕을 치르게 된다. 협조하는 의미

에서 차량관리부 부원들의 차량 유도에 적극 협력해야 하겠다.

⑤... 지난 9일 오후 7시 나사렛홀에서 91년도 은퇴 장로와 권사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예배 및 만찬이 있었다.

그 동안 본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섬겨왔던 이들의 수고를 치해하면서 계속 교회 성장을 위하여 위에서 기도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카메라 초점



▲교역자·장로·안수집사 단기수련회



▲지난 9월에 있었던 은퇴자 위로예배

92년 단기수련회 진행 중

이번 주엔 교구일꾼과 교사를 대상으로

신년들어 단기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가, 그리고 8일에는 권사회가 예정된 시간에 수련회를 마쳤으며, 앞으로 교구일꾼, 교회학교 교사, 전도회 임직원, 교회 직원, 찬양대 대원 수련회가 이 달 중으로 계속 실시된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수련회에 임한 각 직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대로 죽는 영혼을 달리는 발에 열심을 다하여 매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전제하고, "올해도 우리에게 작분 주심을 감사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생히 감당해왔다는 결심을 새롭게 할 것"을 특별히 부

탁하였다.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단기수련회에는 1백50여명이 참석, 당회 서기 윤명식 장로의 사회로 진행, 최인근 목사의 기도, 성경 다모데 후서 2장 2절 봉독 후, "제자와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신성종 당회장 목사가 설교하였다.

계속하여 직분별로 나뉘어 특강 시간을 가졌는데, "부교역자의 위상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정영관 목사가, "장로직과 교회 봉사"라는 제목으로 박종구 목사가, 그리고 "안수집사의 교회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김해규 목사가 각각 강의하였다.

이어же 1992년도 목회 지침 세 달과 교회 정장 배겨 향안에 따른 토의, 그리고 30분 동안 집중 기도회를 끝으로 5시간 수련회 일정을 마쳤다.

영어 찬양 테이프 제작

시온찬양대(대장 김찬채 집회)는 경양을 통한 세계 선교와 교회 전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영어 찬양 테이프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 곡명: "I want Jesus to walk with me" 와 17곡
- 찬양: 시온찬양대(지휘: 이수철, 민준 조희영)
- 구입처: 교회내 테이프보급소 · 가격: 1,000원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계2:1~17)

1 서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말 안듣고 말썽을 부릴 때는 무서운 얼굴로 대하지만,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는 사랑의 얼굴로 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교회 교회마다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낸 일곱 교회는 물론 초대 교회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각 시대마다 존재했던 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도 일곱 가지 종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이고, 사데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

시키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계2:2, 3)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내 사정을 알고 계시까’ 하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위와 사정과 수고와 인내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 교회로서 이단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교리적으로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는

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와 봉사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또 처음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정통적이라는 우리 교회나 교단이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없는 교단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 대해서는 뜨거운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성도들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5절은 에베소 교회가 사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2:5)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교단이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위치를 분명히 깨닫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더 이상 거기에 교회를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계2:7)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만이 영생을

살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폴리갑 감독은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분은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그런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폴리갑 감독은 결국 회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밖에도 서머나 교회는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처음이었 나중이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계2:8)

히브리인의 시간 개념은 현재를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 분은 처음부터 계시는 창조자이시면서 동시에 마지막날 심판자로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때때로 억울한 일이 닥쳐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는 서머나 교회의 형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계2:9)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앞에 처해 있었습니다. 환난에 처하게 되면 무거운 돌이 짓누르는 것과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궁핍이란 가난과 빈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

우리 교회가 사는 비결은 첫 사랑과 기도를 회복하는 것

은 교회이며,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유형의 교회에 속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위치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자연히 부유한 상인들이 많이 모이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유명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이아나 여신상입니다. 그 당시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바로 이 여신상입니다. 사람은 돈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제일 먼저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다이아나 여신상 앞에서 절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바울 사도는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하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봉사하였으며, 아볼로라는 유명한 성경 학자가 성경을 가르쳤던 곳도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계2:1)

별은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주님의 오른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교회와 교회를 연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종말론적 이단이 판을 친 지가 이미 오래 전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공중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충현교회가 교리상으로 보수적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적인 지류를 살펴보면 위대한 신앙의 순교자 이기신 목사님에게 연결되어 있고, 그 분의 신앙을 김창인 원로목사님께서 이어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복음적이고 보수적이며 개혁주의적인 신앙이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단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악한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정통 보수의 가치를 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그러나”라고 하는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계2:4)

에베소 교회는 신앙적으로는 정통 보수로서 칭찬을 들을 만하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뜨겁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처음 사랑은 순수하며, 열심히고 뜨겁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사랑할 때 예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해야

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 귀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일곱 교회 중에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을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라는 말은 유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은 다 의미가 있고, 그 이름대로 되어집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이름과같이 백향화와 같은 향기를 발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책임자로 있던 교부 폴리갑이 주후 155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86세의 고령인 그를 로마 병정들이 체포하였지만 그 인격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해서든 그를 살려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폴리갑 감독에게 길로만이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마디만 하면

다. 그러나 그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더운 물이 팔팔 쏘아져 나오는 집에서 살고 자가용을 굴리고 다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절대적 빈곤에 빠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이름 그대로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리웠고 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교회로 자신들의 신앙의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4 결론

환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궁핍 속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우리들은 조금도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 초기 인류의 역사와 문화는 하천문화에서 강의 문화로, 강의 문화는 대양 문화로 변천되어 왔다. 특히 대양 문화는 지중해문화에서 대서양문화로, 대서양문화는 태평양문화로 문화권의 변화와 함께 복음 전파의 길을 열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는 빌립보를 중심으로 유럽 복음화의 통로를 열었고 미국으로 옮긴 후 아시아에 이르고 있다.

어느 대륙이든 복음 전파의 주역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에 전파된 복음의 주역이 어느 나라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한국을 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는 중국을 생각할 수 있으나, 중국은 종교를 말살시켰고 그곳에서는 기독교 자체도 작은 종파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세계 정치 사회에서 목소리가 커가고 있는 일본이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토양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일본은 단순히 경제력만을 소유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을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남북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둘의 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차후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보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는 한국에는 이미 일천만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이다.

태평양시대라는 말을 김동길 교수가 언급한 바 있으나 그와는 달리 종교적 이슈로서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을 본다면 한국이 역사의 마지막 주인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한국 교회가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화목의 신학

영남, 호남으로 분립된 지역주의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교회가 해야 한다. 이것을 '화목의 신학'이라 표현할 수 있다.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사회의 흐름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시대로 변천해왔다고 했다. 이것에 비추어 한국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 흐름은 한국 사회에 전통적 대가족제도를

다섯 가지 신앙 지표

당회장 신성종 목사 대담 형식으로 피력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92년 새해에 들어 기독교계 모 신앙 월간잡지에 "한국 교회의 신앙 지표"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피력했다.

본 보는 그 내용을 간추려 실어 21세기를 향해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신앙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생활의 지혜로 삼았으면 한다. (편집자주)

분화하고 핵가족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했다. 이제는 섬치럼 떨어져 경쟁사회가 되어 학교교육 뿐 아니라, 교회도 개교회주의로 성장하는 전체적 이기주의병에 걸려 있는 듯하다.

우리 사회나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서로의 이해 대립에서 양보할 줄 아는 삶, 큰 교회들이 먼저 주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삶'이 바로 '화목의 신학'이다.

이민신학

한국 사람들은 전세계 103개국에 이민을 가 있다. 제2의 디아스포라라고도 말할 수 있다. 지난날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보면 슬픈 배경에서 흩어졌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한국이 103개국 이민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시대 섭리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으로 본다. 여기서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신학이 '이민신학'이다. 이 '이민신학'은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에 흩어진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 문화군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외래 문화권 속에서 살면서 또한 한국인이자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문화적 측면에서 헬레니즘문화와 헤브라이즘문화라는 이질적 두 문화가 융화된 사실이다. '이민신학'을 논할 때 중요한 것이 두 개의 이질 문화 속에 융화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한국에 세계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문화의 중심이 되려는 욕심이나, 문화를 지배하려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문화적 통로 역할과 새 문화를 형성하려는 불씨의 역할로써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통일신학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하는데 그 비결은 무엇인가. 물론 세계 열강들의 다양한 파워 게임 속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이뤄야 할 성과도 있으나 핵심은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에스겔서에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겔37:17)는 유명한 말씀이 있다. '통일신학'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통일신학'의 과제는 한국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통일신학'의 내용은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라든지, 꼭 통일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타당성의 거론과 함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통일해야 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되며 통일 후에 해야 할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뜻으로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신앙은 크게 지, 정, 의의 요소가 필요하다. 한국 교회는 이것들의 조화가 결여되어 있다. 지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합리주의, 자유주의로 편향되고, 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가는 극단이 일어났다. 교회는 합리

주의나 자유주의라는 지적인 면과 감성적인 양면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인 의지적인 면이다.

크게 생각할 것 없이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주는 황금률의 실천이다. 이것에서 출발해야 모든 신학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와 정과 의가 합일된 황금률이 우리 삶의 밑바닥에 흐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문화는 사랑의 문화로 완수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선교신학

남북 통일 이후에 한국은 세계를 향해 제사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선교신학'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읽고 넘어가야 할 점은 19세기 서양이 선교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민족과 문화가 더 우월하다는 종교제국주의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동양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장애 요소가 되었다.

한국은 아직 '선교신학'에 대한 정립이 없다. 풀러(Fuller)신학에서는 선교를 '문화가 다른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문화가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로 정의하고 있다. 즉 국내는 전도, 국외는 선교라고 간단히 보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을 우리와 문화가 다른 이민족으로 보아 선교라고 하겠느냐, 아니면 전도라고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선교 개념부터 정립되어야 한다.

존 스타트는 복음화에 봉사를 더한 개념, 즉 전도보다 폭넓게 선

교를 보고 있다. 이 개념이 옳다고 본다. 복음화만을 주장할 때 가난한 이들에게 떡을 주지 못한다. 이 보다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 떡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린다. 북한도 동일하다. 이때 선교가 뒤따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선교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선교 정책은 학자들이 세우는 것으로 교회는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선교에 도움을 주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토착화의 문제이다. 즉 종교제국주의의 위험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지에서는 선교사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나서기보다는 그 토착민이 주인이 되어 그들의 문화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교사 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교지 풍토에 맞는 좋은 의미에서의 토착화, 성서적 의미에서의 토착화 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문화신학

'문화신학'은 '화목의 신학'에서 '선교의 신학'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연결하고 있다. 문화란 바로 우리 삶 전체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문화를 탕자문화, 혼합문화라고 정의하고 싶다. 이방문화도 아니고 기독교문화도 아닌 비빔문화라 할 수 있다. 이는 아직 기독교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한국 사람은 4중인격을 가진 것 같다. 생각은 불교적이고, 사는 것은 유교적이며, 믿기는 무속을 믿고, 가기는 교회에 간다. 앞으로 '문화신학'이 정립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학계의 도움이 필요하다.

'바다철학'이라는 말이 있다. 생물이나 개울물, 강물은 물에 이 물질이 섞이면 소화하지 못한다. 그러나 바다는 재생산하고 소화한다. 한국에는 이 같은 '바다철학'이 필요하다. 문화란 밀물과 썰물과같이 들어가고 나오는 작용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작용이 살아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근간이 된다.

장로칼럼은 기사 쪽주로 하겠습니다.

소망부 신년하례회 가져

김창인 원로목사도 참석

소망부(부장 김재명 장로, 지도 김양홍 목사)는 지난 1월 5일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 하례회에서 김창인 원로목사는 소망부 회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71편 1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을 품고'라

는 말씀을 전하였고 가족을 대표하여 김성관 전도사의 특송이 있었다. 예배를 마친 후 원로목사는 떡과 과일을 대접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에바다부 삼성농아원 방문

에바다부(부장 조인제 장로, 지도 김성윤 목사)는 구랍 25일에 삼성농아원을 방문하였다.

삼성농아원은 농아 고아들과 어려운 가정의 농아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성금과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격려



와 위로를 나누었다.

고등부 겨울수양회 개최

고등부(부장 최성현 장로, 지도 조동원 목사)는 오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겨울수양회를 개최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주제 아래 당회장 신성종 목사, 이병각 목사, 조동원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된다.

92년도 우리 교회 절기 예배 및 사업 계획

◆절기행사

명 칭	기 간	내 용	주 관
송구영신예배	1. 1	· 장소:본당	예배위원회
고난주간음악예배	4. 15	· 합창:합창무아찬양대 · 장소:본당	예배위원회
부활절예배	4. 19	1. 부활절연합새벽예배 · 연합예배:전교인 참석 · 연합예배 참석지 못한 성도는 본당에서 예배 2. 부활절예배: 1~Ⅳ부예배 3. 부활절찬양예배 · 합창:시온찬양대	예배위원회
맥추절감사예배	7. 5	1. 1~Ⅳ부예배 2. 찬양예배:영아부 어린이 특선 및 교사 찬양	예배위원회
교회설립기념음악예배	9. 6	1. 1~Ⅳ부예배 2. 찬양예배:특별찬양	예배위원회
추수감사절예배	11. 15	1. 1~Ⅳ부예배 2. 찬양예배:유치부 어린이 특선 및 교사 찬양	예배위원회
성탄축하예배	12. 24 12. 25	성탄축하음악예배 · 시간:저녁 7시 · 장소:본당 · 합창:초등1~6부 성탄절새벽예배 · 시간:새벽 5시 30분 · 장소:본당 성탄절축하예배 · Ⅰ부예배:오전 9시 · Ⅱ부예배:오전 11시 성탄축하음악예배 · 합창:합창무아찬양대	예배위원회

◆세례식 및 성찬식

명 칭	기 간	내 용	주 관
문답 및 교육	세례식 주간인 월, 화요일	학습, 세례, 입교, 개종 문답 및 교육	당회
세례식	1. 17, 3. 13, 5. 15 7. 17, 9. 19, 11. 20	목표: · 세례 1,500명 · 학습 2,100명	당회
성찬식	1. 5 4. 19 7. 5 11. 15	산년예배시 부활절예배시 맥추감사절예배시 추수감사절예배시	당회

◆수련회 및 훈련

명 칭	기 간	내 용	주 관
단기수련회	1월	1.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 일시:1. 7 저녁 6시~11시 · 장소:갈릴리움 2. 권사 · 일시:1. 8 수요일 부예배 후 · 장소:갈릴리움 3. 교구일꾼 · 일시:1. 15 수요일 Ⅰ, Ⅱ부예배 후 · 장소:본당 4. 교사 · 일시:1. 18 저녁 6시 · 장소:갈릴리움 5. 전도회 임원 · 일시:1. 22 Ⅰ부:여전도회 Ⅱ부:남전도회 · 장소:갈릴리움 6. 직원 · 일시:1. 24 오후 5시 · 장소:교육관109호 7. 찬양대원 · 일시:1. 25 저녁 6시 · 장소:갈릴리움	당회
피택 안수집사 및 권사 교육	91. 10~92. 3	· 대상:91. 9. 8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안수집사 및 권사후보 · 장소:교육관 307호	성경연구원
겨울수양회	1. 6~2. 29	· 각 부 실정에 맞도록 부장 책임 하에 진행	교육위원회
여름수양회	7. 20~8. 21	· 각 부 실정에 맞도록 부장 책임 하에 진행	교육위원회
찬양대 수양회	8월	· 각 부 실정에 맞도록 부장 책임 하에 진행	찬양위원회
93년도 신임 서리집사후보교육	9월	· 일시:9. 9, 12 오전반:10시 오후반:7시 · 장소:교육관 307호 · 대상:93년도 신임 서리집사 후보자로서 당회의 면접에 합격한 자	성경연구원
피택장로교육	92. 2~10 92. 11~93. 6	· 일시:피택 후 6개월 · 장소:교육관301호	당회

◆제2회 전국목회자대회

명 칭	기 간	내 용	주 관
제4학기	2. 10~4. 13	· 주제:신학과 성경 연구	한국교회성장연구원
제5학기	5. 4~7. 6	· 주제:해외 선교와 국내 전도	
제6학기	9. 14~11. 16	· 주제:목회 행정과 심방	

◆출판

명 칭	기 간	내 용	주 관
주간송헌	매주일	· 매주 15,000부 발행 · 배포 범위:전 성도, 각 교회·기관·지교회, 교포 성도, 목회자제·마녀수양생, 불신자 등	기획위원회
충현의 만나	매달	· 가정예배 자료 · 매월 10,000부 발행 · 교구를 통하여 각 가정에 배포	충현출판부
계간충현	3. 6 9. 12월	· 신앙교양지로 매월 13,000부 발행	기획위원회
강해설교집		· 감동인 원로목사, 신성종 담임목회 주인 및 수료 예배 강해 설교집 편찬 · 출판된 강해집 재발간	강현출판부

◆성경공부

명 칭	기 간	내 용	주 관
충현성경 통신강좌	1월~12월	· 매주 주보에 게재 · 매주 담임지침 교구간사에게 제출 ·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출제	성경연구원 교구위원회
주간성경공부	3월~5월 9월~11월	· 1반:화요일 오전 10시 · 2반:화요일 저녁 7시 · 3반:수요일 오후 2시 · 4반:목요일 오전 10시 · 5반:목요일 저녁 7시	성경연구원

교사양성부	3월~5월 9월~11월	· 주일반:오후 12시 30분 · 화요일:저녁 7시	성경연구원
찬양대원양성부	3월~5월 9월~11월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성경연구원

◆주요행사

명 칭	기 간	내 용	주 관
장학금 수여	3. 8(1학기) 9. 13(2학기)	· 총현장학금 · 소석장학금 · 사랑의 장학금 · 신학생장학금 · 해외장학금 · 선교사자녀장학금 · 위탁장학금	장학회
피택안수집사고시	3. 28	시간:오후 2시 장소:당회실 대상:소정의 교육을 필한 피택안수집사	당회 (성경연구원위촉)
피택권사면접(최종)	3. 28	시간:오후 4시 장소:교육관 3층 대상:소정의 교육을 필한 피택권사	당회
제5회교구찬양대회	4. 12	시간:오후 2시 장소:본당 대상:각 교구별로 찬양	교구위원회
안수집사 장립 및 권사 취임	4월	대상:안수집사고시 및 권사면접 합격자 장소:본당	당회
경로잔치	5. 9	장소:갈릴리움 대상:70세 이상 본 교회 등록 성도	청년부
살롬경로대학	4월~6월 9월~11월	시간:매주 목요일 10시 30분~3시 30분 장소:갈릴리움 대상:60세 이상된 남녀(타교회 성도 및 불신자도 가능)	살롬경로대학
해외 교포 기독교 학생복음화대회	7. 1~10	장소:충현기도원 대상:미주 및 유럽지역 교포 고등학생 인원:200명 등록비:미화 백불 항공료:자부담 · 숙박비:교회부담 강사:당회장 및 초빙 강사	세계선교위원회
92 전도대 파송	7. 27, 31	지교회별로 전도대 파송 지도:부목사 대상:안수집사 대원:10명~15명 이내 훈련:신생일치의 모범을 보이도록 철저히 훈련	전도위원회
제4차 세계교도선교대회	8. 20~29 9. 1~5	지도자수련회: · 인원:50명 · 장소:국제회의실 선교대회: · 대상:80여개국 교도선교회원 · 장소:본당 주최:한국교도선교협의회 후원:충현교회 강사:원로목사, 당회장	세계선교위원회
불우 이웃 위로초청잔치	9. 8 12. 22	결기별 초청(추석 전, 성탄절 전) 대상:소년소녀가장 · 미화원 · 절대빈곤가정(구정추천), 신문배달정소년 전도:예배 후 만찬, 선물 증정	구제위원회
새가족환영회	격월	일시:제수달 첫째 주일 Ⅳ부예배 후 장소:갈릴리움	교구위원회 새가족부
직분자 임명	12. 6 12. 13 12. 20	1. 서리집사 및 교구일꾼 시간:1~Ⅳ부예배시 2. 교사 Ⅲ부예배시 제2교육위원회 교사 Ⅳ부예배시 제1, 3교육위원회 교사 3. 찬양대원 Ⅰ부~Ⅳ부예배시 담당 찬양대, 크로마하프, 핸드벨, 오케스트라 Ⅲ부예배시 시온찬양대, 베들레헴찬양대, 호산나찬양대, 실로암찬양대	당회
원로 추대식 및 장기 근속자포상식	12. 27	시간:찬양예배시 장소:본당 대상:· 만70세 이상 장로, 안수집사, 권사 · 10, 15, 20, 25년 근속 봉사자	당회

◆회의

명 칭	기 간	내 용	주 관
공동의회	1월	· 일시:1. 5 Ⅳ부예배 후 · 장소:본당 · 참석:본 교회 세례교인	당회
정기제직회	격월	· 일시:제수달 첫째 주일 찬양예배 후 · 장소:본당 · 참석:서리집사 이상	제직회
특별제직회	12월	· 일시:12. 27 Ⅳ부예배 후 · 장소:본당 · 의제:92년 결산 승인의 건 93년 예산 및 사업 계획 승인의 건	제직회
장기당회	매월	· 일시:매월 마지막 주일 지난 수요일 Ⅳ부예배 후 · 장소:당회실 · 의제:당회약한 심의	당회
일시당회	수요일	·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로 분수 이상에 정당한 때 소집	당회
위원장협의회	매월	· 매월 셋째 주일 지난 월요일 저녁 7시 · 장소:선교관 304호 · 의제:각 위원회별 의제 설명 및 협의	당회장

◆송회

명 칭	기 간	내 용	주 관
권사회총회	12월	· 일시:12. 2 수요일 Ⅳ부예배 후 · 장소:갈릴리움	권사회
안수집사회총회	12월	· 일시:12. 2 수요일 Ⅳ부예배 후 · 장소:국제회의실	안수집사회
교구총회	12월	· 일시:12. 18 저녁 7시 · 장소:본당	교구위원회
남녀전도회총회	12월	· 일시:12. 20 주일 Ⅳ부예배 후 · 장소:본당	전도위원회
찬양대총회	12월	· 각 찬양대로	찬양위원회
교사총회	12월	· 각 부별로	교육위원회